｢자기발전론의 동·서비교 -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V｣에 대한 논평

김 현 지 (성균관대학교)

조긍호 교수님의 저서 “자기발전론의 동·서비교 - 새로운 심리학의 가능성 탐색 IV”는 동서의 자기(self)에 관한 이론과 현상을 심리학적 그리고 유학적 관점에서 정리 및 분석하고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유학자들이 사회성, 도덕성 및 가변성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기술했습니다. 특히 현대 문화비교심리학에서 밝혀진 자기(self)와 관련된 행동과 사고의 차이의 내용을 비교 고찰하여 ‘집단주의 문화’의 동아시아인과 ‘개인주의 문화’의 서구인이 보이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자기 인식, 행동 및 태도의 차이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인의 자기관의 근간으로 유교를 지목하였고 관련된 유교사상에 대하여 (유학의 수양론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조긍호 교수님의 저서에 대해 논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에는 논평의 소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논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했던 점과 의문이 드는 점을 중심으로 부족한 저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1. 필자는 동아시아인과 서구인에게서 보이는 행동과 사고를 각각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서구인이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다면 동아시아인은 타인중심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였고, 대부분의 심리적 사고나 행동방식을 아래 표와 같이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한국인, 중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동양인은 집단주의적이고, 미국인과 같은 서구인은 개인주의적이라고 기술합니다. 이 관점은 책에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긍정적 측면의 확인에 근거한 자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만족도와 행복감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수용감이나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조화감이 행복감의 직접적인 지표가 된다는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

(p. 146)

| 동아시아인 (집단주의) | 서구인 (개인주의) |
| --- | --- |
| 상호의존적 자기관 | 독립적 자기관 |
| 독립성, 실체성 | 의존성, 가변성 |
| 자기표현, 타인중심적 | 자기통제, 자기중심적 |

그러나 필자가 책 마지막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개인주의-집단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동서양의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과거 발견들과 사상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필자가 언급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한 학자 중 한 명인 Triandis는 사람의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Triandis, 1995; Chiou, 2001). 즉 사람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다양한 문화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한국인과 미국인은 집단주의적, 관계중심적,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1. 필자는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발견한 연구들과 문헌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30여년 전의 연구들로 최신 심리학 연구를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Markus, Kitayama, Heine, Diener, Taylor 등 저명한 학자들의 (예전) 발견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많은 비교문화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엄격한 방법론을(rigorous methodology) 사용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책에서 이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책에 언급된 동서양의 문화차이와 상반된 연구들도 많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인 자기고양, 낙관주의적인 사고 또는 정적 사고에 대한 많은 비교문화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Heine와 같은 학자들은 자기고양의 문화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인과 일본인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Heine는 자율성, 개인적 성취와 높은 자존감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집단의 화합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자기통제적인 면을 더 보여주며 자기고양 욕구는 갖고 있지 않고 자기 고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이 게재되었던 당시에도 이 연구에 대한 비판은 있었고, 당시 Sedikides, Gaertner, Brown, Kobayashi, Kurman, Endo과 같은 학자들은 다른 발견을 하거나 자기고양의 동서양의 문화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문헌으로는 자기고양의 문화차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필자는 몇몇 주요 동서양의 심리학 개념의 문화차이에 (정서, 자기고양, 자기통제) 대해 설명할 때 일본인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심리학연구들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필자는 한국, 일본, 중국 문화 모두 유교를 근거로 두고 있으므로 책에 기술된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동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인 대상 연구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동서양의 문화차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다르다면, 한국인에게서 보이는 문화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학사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논어>에서 공자는 <인(仁)의 실천은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는 일이지, 남에게 달려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며 (p. 188) 인(仁)과 의(義)를 실천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에 따르면 유학에서는 ‘인간을 덕성의 주체’로 파악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파악합니다. 집단주의의 근간인 유학 사상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지향해야할 삶의 자세를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이라고 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p.188).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능동적’, ‘주체적’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구의 전통문화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주의 사람의 특성과는 다릅니다. 필자의 해석과 일부 문화비교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고, 자기자신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목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유학사상에서 말하는 ‘도덕의 인식과 실천자’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유학사상 기반 집단주의적인 특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 문화의 사람들은 능동적인 존재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나 목표는 개인 및 문화별로 조금 상이하고 표현 방식이 개인 및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나(서구인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보 위주로 표현) 서구에서 묘사하는 집단주의 사람의 ‘수동적인’ 특징은 동양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묘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1. 필자에 따르면 유교에서는 “인간이 본유하고 있는 제반 욕구와 감정 중에서 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 권장하는 것은 도덕적 지향성의 욕구와 타인 및 규범지향적 정서”이고 “유학자들은 이러한 도덕적 지향성의 욕구와 규범지향적 감정은 재기자에 속한 것이어서, 그 충족과 유발의 여부가 [외부환경이 아닌] 개인의 수양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p.419). 타인 및 규범지향적인 정서가 아닌 자기중심적인 정서는 재외자로 생존 욕구, 생리적 욕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억제해야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p.421). 유학에서는 타인지향적 정서 외의 정서를 본능에 의한 생리적인 반응에 의한 정서, 이기적인 정서라고 여기는 걸까요? 필자는 유학에서 정의하는 정서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정서의 의미와 그 양상이 같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하고 여러 정서를 느낍니다. 유학에서 말하는 타인지향적 정서와 이기주의적인 정서의 구별이 항상 맞는지 그리고 복잡한 사람의 정서를 분석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분류법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느끼는 실망감이나 즐거움은 그렇다면 어떤 정서일까요?

또한 아끼는 사람들과의 협업, 타인의 행복, 타인의 성공은 물론 나의 행복과 성공이 목표 중 하나일 경우, 이 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떤 정서일까요? 이런 정서는 재기자에 속하는 것일까요 재외자에 속하는 것일까요?